

중국경제, ‘신창타이(新常态, 중국판 뉴노멀)’ 시대 진입

■ 시진핑 주석은 2014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경제가 ‘신창타이’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함.

※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 연도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차기 연도 거시경제정책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서 다음 해 3월 전인대에서 공개되는 정부업무보고 내용의 근간을 이룸.

– 신창타이의 주요 내용은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(고속성장 → 중고속성장)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, 요소 및 투자 중심에서 혁신 중심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임(표1 참조)¹⁾.

–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에 신창타이가 상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시 주석은 지난 5월 신창타이를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제시한 이래 APEC 최고경영자회의 등 공식석상에서도 언급한 바 있음.

○ 리커창 총리가 1월 21~24일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‘신창타이’ 관련 발언을 하는 등 2015년 중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‘신창타이’가 될 것으로 보임.

표 1.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‘신창타이’의 주요 내용

항목	내용
소비	모방이 아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소비
투자	인프라의 상호 연결, 신기술·신제품에 대한 투자 증가
수출 및 국제수지	수출이 경제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
생산능력과 산업조직	신흥산업, 서비스업, 소기업의 육성, 생산의 소형화·지능화·전문화
생산요소 상대우위	값싼 노동력 대신 품질 및 제품차별화로 경쟁
시장경쟁	시장의 투명성 제고
자원환경	녹색성장 위주의 발전
경제리스크 누적 및 해결	각종 경제리스크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지만 적절한 경제구조전환 통해 해결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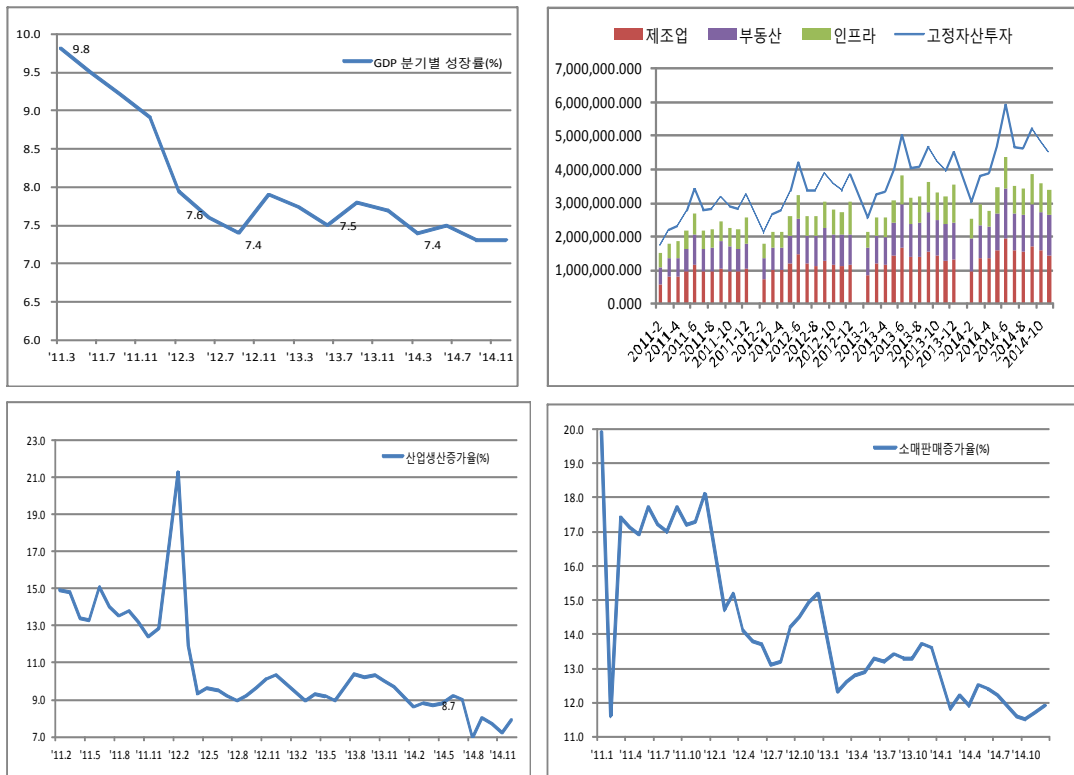
자료: 2014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

1) 시진핑 주석은 경기둔화와 경제구조전환이 계속되는 이러한 상태를 ‘일상 상태(常态)’로 받아들이고 평상심을 유지할 것을 주문함.

■ 2014년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, 대내외 불안요인(부동산경기 둔화, 국제유가 하락, 세계경제 침체 등)으로 인해 2015년에도 경제성장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함.

- 중국은 2012년 들어 8%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(그림1 참조), 2014년에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7.4%²⁾를 기록함.
-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이보다 더 하락한 7.1%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,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7.0~7.2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³⁾.

그림 1.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



자료: CEIC (2015.1.20)

■ 신창타이 시대의 구조전환 과정은 중국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, 한국 또한 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장진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.

-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보다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5년에

2) 2015년 1월 20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

3) IMF 7.1%, OECD 7.1%, ADB 7.2% 전망

도 온중구진(穩中求進, 안정 속 경제성장)을 피하며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- 이러한 구조개혁 과정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나 경쟁 격화 등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, 서비스업 및 소비 위주의 산업구조 전환, 지역간 균형발전, 과학기술 혁신, 녹색성장, 자본시장 개방 등 기회분야에 대한 선제적 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<자료: 신화망, 중국망, 동방조보, Oxford Analytica 등>
(조고운 연구원)